

정창훈(인하대)

선생님께서 발표문을 통해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 제정 이후 일본 사회에서 배외주의가 어떠한 방식으로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정동 정치의 관점에서 설득력 있게 분석하고 계십니다. 특히 과거 재특회 등을 중심으로 나타났던 노골적인 혐오 표현이 일정 부분 위축된 이후에도, 배외주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서’, ‘안전’, ‘공생’, ‘국민 보호’와 같은 보다 정당하고 합리적인 언어로 번역되며 제도 정치와 정책 담론의 차원에서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신 부분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이를 통해 배외주의를 단순히 극단적인 정치세력의 일탈적 현상이 아니라, 국가 정책, 정당 정치, 그리고 일상적 감각의 차원에서 재생산되는 정동 정치의 문제로 개념화하신 점은, 최근 일본 사회의 정치적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의 등장과 참정당의 약진을 사례로, 배외주의가 더 이상 직접적인 혐오의 언어가 아니라, ‘생활의 안전’, ‘아이들의 미래’, ‘돌봄’과 같은 정서적 언어를 통해 수행되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페모내셔널리즘’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러한 배외주의의 젠더화된 수행 양상을 분석하신 점, 또 ‘유기농 네이티브즘’이라는 개념을 통해 순수와 오염, 보호와 배제라는 감각이 개인의 신체, 식생활, 공동체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인 정치적 상상력으로 조직되는 양상을 포착하신 점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최근 동아시아의 정치적·문화적 담론 속에서 나타나는 국민주의와 정동 정치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선생님의 발표를 통해 많은 자극과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토론의 기회를 주신 데 감사드리며, 전반적으로 선생님의 논지에 깊이 공감하는 바임을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선생님의 발표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헤이트 스피치 규제 이후 배외주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상화(normalisation)’의 과정을 거치며 ‘상식’, ‘질서’, ‘안전’, ‘국민 보호’와 같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언어로 번역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신 부분이었습니다. 이는 배외주의가 더 이상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정치 현상이 아니라, 제도 정치와 정책 담론의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정치적 감각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설득력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를 따라가다 보면, ‘정상화’라는 개념의 이론적 위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정상화’란 배외주의가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정치적 국면으로 진입했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국가가 본래적으로 지니고 있는 경계 설정과 배제의 논리가 특정한 역사적 조건 속에서 보다 가시적으로 표면화된 국면을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달리 말해,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배외주의의 ‘정상화’를 하나의 역사적 전환으로 이해해야 할지, 혹은 국민국가 정치에 내재해 온 구조적 속성이 새로운 언어와 형식을 통해 재조직되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할지에 관해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상화된 배외주의’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외국인 정책이나 이민 정책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일본이 공식적으로 이

민 정책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문제적이지만, 모든 국민국가가 일정한 형태의 국경 관리나 이민 통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상의 이민 정책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배외주의의 '정상화'를 구별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무엇이라 볼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해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모호하거나 경계 지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문제적인 지점일지도 모릅니다만 말입니다.

둘째, 선생님께서 제시하신 '페모내셔널리즘', '유기농 네이티브즘'이라는 개념이 보여주듯이, 최근의 배외주의 정치가 단순히 이념적 주장의 차원을 넘어, 보호, 돌봄, 순수성, 생활의 안전과 같은 감각적이고 정서적인 차원에서 대중에게 호소하는 정동 정치로 수행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러한 언어는 직접적인 배제나 혐오의 표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보호하고 미래를 지킨다는 감각을 통해 대중과의 정서적 동일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동원 전략으로서 매우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 최근 일본 정치에서 중도 및 리버럴 세력은 (선거 결과에서도 확인되듯이) 급격히 약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배외주의적 정동 정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치적 언어와 감각을 충분히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 현재 관찰되는 배외주의의 '정상화'는 우파 정치세력의 전략적 성공의 결과이기도 하겠으나,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리버럴 정치의 정동적·담론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조건이 맞물린 결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현상은 일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최근 유럽과 미국 등 여러 지역에서 중도 및 리버럴 정치세력이 약화되고, 그 빈 자리를 국민주의적이거나 배외주의적인 정치가 채워가는 흐름과도 일정 부분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배외주의의 '정상화'는 특정 정치세력의 부상이라는 차원을 넘어, 현대 민주주의 정치에서 정동과 정치적 대표성이 결합하는 방식 자체의 변화와도 관련된 문제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현실적 조건 속에서 리버럴 정치가 어떠한 방식으로 새로운 정치적 언어와 정동적 기반을 형성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어떤 전망이나 가능성을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